弱소민족대회의조선대표와일본대표 (右側부터 金法麟 片山潛 李儀景 許憲 李克魯)

…게의하게되엇는데 위원(委員)의 죄상보고(罪狀報告)를 보면 (가) 學父兄의 會議도 教授時間을 撤廢한것 (나) 兩縣職員會議도 말미아마 一日을 休業 (다) 自己의 飮水는 淨飯히하고 生徒의 飮水는 溝水를 飮하게 하는것 (라) 學校當局의 不注意로 教科書가 延着되어 一個月間을 休學한것 (마) 時間中에 來客時는 教授時間을 廢止하며 日鮮人 區別的 行動을 하는것 (바) 飮酒風習한 行動이 有하며 料理家出入이 不絶 (사) 教授時間中이라도 生徒를 引率하고 川獵을 하는것 (아) 學父兄을 無視하는것 (자) 時間에 自己의 妻를 職員室内에 불러 生徒의 目前에서 『히야가시』를 하는것 이들은 학부형은 더욱 분개하야 임시대회를 열어 회장의 공긔는 긴장하얏고 몃몃의 위원을 선정하야 경고문(警告文)을 발송하며 군당국과 도당국에까지 교섭하기로 되엇다는바 기타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동오후 오시에 폐회하엿다더라

同一戰線에스자고 勞總에檄文

의회해산과대중불간섭 표방에공명하야달라고 日本三個團體에서

일본로동당(日本勞農黨)로동농민당(勞働農民黨)사회민중당(社會民衆黨)의삼당이의회해산(議會解散)대중국불간섭(對支國不干涉)이라는표방으로 협동전선을 늘이엇다함은 긔보한바이어니와 모쳐로부터 들은바에의하면 지난십일일에 발신인도 긔명되지아니한 격문 수십매가 시내 견지동 로동총동맹 본부(堅志洞勞働總同盟本部)에우송되엇는데 이것을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서 탐문하고 그계통을 차자보는중이라고 그격문의 내용은 긔사각단데의표방에 조선각노동단데에서도 동일전선에 나가자고 력설한것이라더라

和龍縣에雹災

간도 화룡현(和龍縣) 석건평(石建坪) 디방에는 지난 십일오후 다섯시오분부터 동시삼십오분까지 주먹가튼 우박이 쏘다지듯 쏘다저 창호가 뚤어지고 여간곡식싹도 모다 업서젓다는데 우박한개의중량이 삼푼중이엇다고

面長選擧를民選要求 玉龍面民大會에서

유자격자의지배를밧고저

전남광양군옥룡면(全南光陽郡玉龍面)에서는종래면장(面長)과면민사이에 불평이만하 면민의불안을 금치못하든바 금번현면장김교현(金敎玹)씨가사직함을 긔회로 관선면장(官選面長)의 지배는 밧지안켓다하야 금번에는 면민으로 유자격자를선뎡하야 공평한지배를 밧겟다는목표로 지난칠일 오전열두시부터 이백여명의 면민이 당디로동회관(勞働會舘)에서면민대회를개최하고 변정섭(卞貞燮)씨외 사회밑에의장(議長)변정섭씨로의사를 진행하엿는데 결의사항(決議事項)은 좌와갓다는바 금번에선정된면장은서정찬(徐廷燦)씨인데 삼십육점으로 당선되엇다는바 이에대하야는면장선(?)씨와철인의위원을선정하고 군당국(郡當局)에 진정(陳情)하기로되엇다더라

◇決議事項
一、議長及書記選擧
二、各區代表者點名
三、本面長選擧의件
四、本面學校長에關한件
五、其他事項

校長非行事件 面民大會서決議

일반학부형은더분개

옥룡보통학교(玉龍普通學校)는 이년전에 설립되어 교장대총종규(校長大塚種規)란자가취임되어 지금까지 류임되엇는데 근래에 넘우나직권람용(職權濫用)을하며 교장된본분을 리행하지못하야 일반학부형은 분개하야 자체교육에 대하야 불안을늣기든바 금번면민대회를긔회로 이를

長野縣大火 一市街全滅

사상다수、관공령전부소실 九百餘戶一時灰燼

십이일오후두시경에 일본상야현목증복도뎡(長野縣木曾福島町)평택손一(平澤孫一)의 집에서 불이일어나서 때마츰맹렬히 부는바람과함께 불길은사방으로퍼저 목증천(木曾川)을 건너서대안(對岸)에잇는장복사(長福寺)가는데까지 연소하야 민가구백여호를소실케한후오후일곱시경에 진화하엿스며 더욱이소실건물중에는 우편국、경찰서、고등녀학교、소학교、재판소、촌역장、데실림야국지국(帝室林野局支局)등이잇섯스며 한편오후여덜시까지 판명된것은 사망자세명 부상자수십명에 달하엿다더라(복도뎐)

小樽에도大火 五百戶燒失

십이일밤 여덜시반경에 일본소준시금뎡(小樽市錦町)보합뎌케조공장(寶瀾箸製造工場)에서불이일어나 때마츰 맹렬한동북풍으로인하야 불길은 부근석산뎡(石山町)색내뎡(色內町)으로 옴마 오백여호를소실케하고 동열한시반경에진화되엇다는데원인과손해는 도사중이며 동화재로 인하야 사상자도 만흔모양이라더라(소준뎐)

詐欺常習漢 無錢取食코檢束

지난십이일에 군산서(群山署)형사의손에 눈알이나오도록 엄중한취됴를 밧고잇는 사십된일본인이 잇섯스니 그는본적을복강현(福岡縣)에 둔자로서 일뎡한주소가업시 각처를 배회하든 흑뎐록장(黑田록藏)(?)인바 원래절도전과 이범인데도 불구하고지난삼월 이십륙일에 [illegible]서충래(西忠太)라는 일본인에게 목선한척을위집하고 돈을 채용하겟노라고 감언리설로 되어 이백원을사긔한후 종적을이…

前巡査出身의竊盜 捕送途中格鬪

短刀로刑事面部刺傷 길가에서수삼차도망하려

당진군수청면 대명동(唐津郡…大明洞) 김동섭(金東燮)(二○)은 원헌병보조원 순사간수(元憲兵補助員巡査看守)등을다니든자로서 『모루히네』중독이되어 각디방으로 돌아다니며 절도전문을 하야서 대구서에서는 동섭을 탐지한 대구서에서 비상한활동을 하여오데 포코저 지난십일에 범인이달성군수성면(達城郡壽城面)에 잠복하여잇슴을 탐사 가탐지하고 현장에나아가 데포하야 대구서로 오는도중에 두번이나 도망할을극력으로 데포하야 동행하야 오든중 시내경뎡이뎡목(市內京町二丁目)에와서 또한도주하려고 주머니속에서 칼을내어 포승을 쓴코 찔으려고함으로 일대격투로 한결과 데포하얏는데 형사는 면부(面部)여러곳에 상처를내엇스며 그는절도전과 삼범이라는바 현재발각된것만 십여건이며금액은사오백원이나되어아즉까지도여죄가 만히잇슴으로 방금엄중히 취됴중 이라더라

…리저리 피하여 다니다가 지난사월십팔일에 군산유곽 북도지노(北島チノ)집에서 창기구환(久丸)을 불러가지고 일주야를 질탕히 논후 주인이 화대와 료리갑이 십칠원오십전을 청구한즉 저의누의동생이 영뎡(榮町)에 산다고 하며 엉터리업는 거짓말로 가려 가면 가방속에 돈을 주겟노라고 하야 그주인이 동반하야 가려 갓섯든바 얼마가다가 길가에서 도망질을 한바 이래 수색하기에 골몰하든 군산서원에게 체포되어 전후사실을 자백케함이라는데 일간검사국으로 송치하리라더라(군산)

池上에浮屍

…(목도)

가면양□상선교회 명수곡하(?) 북면삼괴동(?) 못에(池) 시톄(屍體)가 떠잇슴을 지난십일 오전여덜시에 지나가든사람이 발견하고 동주재소에 말하엿든바 이곳 주재소원(駐在所員)은 현장에 검험하야 도사한결과 그는 달성군 현풍면하동 일백칠십삼번지 김경철(金慶哲)로 판명되엇는데 이에 그자살한 원인을 들건데 그는 동동(同洞)에서 본래는 상당한 재산을가지고 생활하야 오든중 불행히 작년수해(昨年水害)로 인하야 논과 밧(田畓)을 유실하고 생활에 곤난하야 그날그날의 생활을 계속해 오든중 설상 가상으로 또한몸에 중병(重病)이 들어 도저히 고칠희망이 업스며 생활곤난이 넘우나 심함으로 그와가티 자살한것인바 시체는 그의안해 허순이(許順伊)에게주어 매장하엿다더라(대구)

元山衝突事件關係者 廿一名檢事局送致

야지하다사람죽인사건

지난날 이십삼일밤 원산녀자청년회주최의 강연회석상에서 원산청년당의 조직을극력 반대하야 야지하다가 관중과충돌되어 드디어 한명의사망자와 다수한중경상자까지 내이게되어 그간원산경찰서에서 취됴를 밧든중이든 무차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취됴를 마친후 동관계자이십일명은 상해급상해치사 폭력행위처벌법위반(傷害及傷害致死暴力行爲處罰法違反)이라는 죄명으로 사건의주인공인 류유식(劉有植) 한룡(韓龍?)의 두사람은 구속 포박하고 또그외십칠명은 구속을하지안코 지난십이일 아츰에 검사국으로압송되엇다더라(원산)

米國로市同胞

◇生活狀態와實力

모든방면으로 구축을당하게되어 큰세계각니에 흐터저잇는조선사람들의 생활상태는 실로 도사하기에 곤난하야 그안부를알길이업는터인데 이래미국 「로쓰안젤쓰」에잇는 조선사람의경영하는 흥업보(興業報)의 보도한바에의한즉 그곳에잇는 조선사람의경영하는것과 그곳에와갓다는 長老敎會、國民地方會、自治敎會、興業府金會、興士團、愛國婦人地方會、學生會、歐米委員部支部、國語(朝鮮語)學校 이외에 조선사람의 경영하는상뎜은 알에와갓다더라

食物商店=鄭지연、鄭인영
旅舘=宋경오、韓병모
양찬뎜=李경진、金영회
勞働周旋所=朴재형、安상학
玉突所=金경완、安상학
理髮所=徐승석、金경완
洗濯所=林정수、尹병희、金성권、玄승렬、柳명선
菜蔬店=金종림、李성구、金용호、高용도、崔용식、林준고、鮮于란、李범녕、宋원숙、순고、李영고、朴경길、金일환、金원택、黃성택、全효택、宋헌두、金순권、林시영、宋종익、李종녹、孫승조、申영호、徐정우

新興少年會創立 警察이無理禁止

아모리유도업시무리금지 ◇一般은매우憤慨

신흥군(新興郡)에잇는 소년들은 소년회를창립하고저 지난구일오후두시에 당디청년회관에 창립준비위원회(創立準備委員會)를개최하고 다시십일일에 창립총회(創立總會)를 개최하고저 준비위원정인석최운식(鄭仁錫、崔雲植)두사람이 집회계(集會屆)를 가지고 당디경찰서에갓든바 서장급고등계주임(署長及高等係主任)은우스며말하기를 소년회조직은 하등필요가 업다는등 여러가지무리한말로 아무리유도업시 절대금지를시킴으로 부득이회는 금지를당하엿스며 이에대한 경찰의 무리한압박은 일반이매우 분개한다더라(함흥)

郵便局電信工夫가 拳銃으로동무威脅

술만히먹지말라는말에 분을내여죽이겟다위협

강계(江界)헌병분대에서는지난구일에 당디우편국 뎐신공부로근무하는한효찬(韓孝贊)(二三)이라는 청년을 검거하야 취됴한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말을듯건대 권긔효찬은헌병대(憲兵隊)말당번의일을 보든 오진영(吳鎭泳)을맛나산에가서술을 마간따신후또다시김정직(金正直)이라는술장사의집에가서술을먹으려하얏스나 마츰내 바더온술이다 떨려슴으로 할수업시 몰아오다가 도중에서 권긔효찬이는 진영에게 다른곳으로가기를청하엿스나 권긔진영은 술을과히먹으면 아된다는말을하고 돌이켜 집으로 가랴함으로 권긔효찬은 갑작히 몸으로부터 권총을 끄내어 가슴에대이고 쏘아죽인다고 위협함으로 영문을모르는 권긔진영은 정신을수습하야얼마를 조흔말로 달래이며 육혈포를 치우라하엿스나 듯지아니함으로 할수업시 권긔진영은최후의 용긔를내어 갓갓으로 권총을 빼아슨후 급히헌병대로뛰어가서 그러한말을 하엿승으로 그와가티 헌병대에서 그청년을취됴한다는데 그권총은우편국의것을 훔쳐가지고 온것으로 판명되엇다하며 그원인은 아즉도 자세히알수업스며 구일에 취됴가끗낫승으로 일간서류와가티검사국으로넘기리라더라(강계)

本報讀者慰安 音樂講演會는

별서성황을예긔

본보부산 목도분국(本報釜山牧島分局)주최인 독자시민위안음악무도대회(讀者市民慰安舞踏大會)는 부산연악회(釜山硏樂會)와본보부산지국(本報釜山支局)후원으로 십사일 오후칠…

二人共謀로 證券印章僞造

한명은데포

부천군(富川郡) 남동면(南洞面) 염뎐(鹽田)에서 도종을 하여 오든 시내사정(寺町)권명선(權明先)과 부천군 남동면(南洞面)남촌(南村)에사는신모(申某)라는두사람은 공모하고 대구영정칠(大邱榮町七)중촌반조(中村伴造)라 고새인 도장을 위조하고 권표(券票)일천장을 위조하야 엇더한사긔행동을 하려다가 인천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권명선은방금데포취됴중이라하며 신모는 아즉데포되지아니하엿스나 불일간검거되리라 더라(인천)

二百日女學生 料金밧고裸體撮影

국부도안가리고사진백히어 한번에삼십원식료금을바다 校當局極秘裡調査

일본 산형현립미택 고등녀학교(山形縣立米澤高等女學校)생도가 산형시내모사진관(寫眞舘)에 드나들며 풍긔문란한 행동이잇슴으로 소할경찰관헌이모부터 됴사한결과 도중약이백명은 금년일월이래삼월까지사이에 날마다그사진관에 드나들며 나톄사진(裸體寫眞)을 박힌것이 판명되엇는데 그중에는 삼십원의 보수를밧고 국부(局部)를 가리지도아니하고 사진을 박혀 주엇스며 또엇던녀학생은 남복을하기도하고 기타여러가지 모양을꾸며가지고 풍속에 방해되는사진을 박힌것이 판명되엇는데 이것을안 학교당국에서는 극비밀리에 엄중됴사하는중이라더라

讀者慰安演劇

조선극계에 명성이 놉흔극우들로조직된조선극우회(朝鮮劇友會)일행이북선디방을순회하다가 성진(城津)에 래도하야시내 청진좌(淸津座)에서활신연각본을 메야상연하야 일반에게 만흔환영을 밧는중 지난 구일은 특히 본보지국독자를 위하야 우대흥행하엿는데 그날밤 당야관객은 더 밀려드는 관중은 만원의 성황으로 동회무대감독 권만수씨의각색비극 「어머로가나」와희극 가내안전(家内安全)을 상연하야 만흔환영을바닷고 마즈막으로안세민(安世民)복혜숙(卜惠淑)량씨의 짠쓰를 요구하엿스나 결국안씨의 짠쓰만하게되어 일반에게 만흔쾌감을 주엇는데 그이튼날도 본보독자를 위하야 『淚의 指環』을 상연하야 하다가 불행히 아츰부터 오는 비가밤까지 계속하엿슴으로 부득이 흥행치못하게되어 일반의 유감이 만케되엇더라(청진)

安眠妨害한다고 隣室의露人과格鬪

결국경관이가서겨우진정

무르녹은 봄날에 곤한잠을 일우지못하는 십삼일오전 한시경에 로서아사람 한명이 서대문 경찰서에뛰어들어와서 몸을구하야달라고 함으로 동서원은 그로서아사람의이야기를들은후 시내죽쳠뎡(竹添町)일뎡목 십번디 로국인의집에가서본즉 배여명의 조선사람이 그집을에워싸고서서 그중에한사람이『그년좀 잡어내라고』소리를지르며 덤비는 사람들을 잡고 리유를도사한결과 권긔로서아사람은 독신자로 늘 부근사람 들이라든지 경찰관에게도 미인을 하나 얻어달라하야 오든중 하로는 그부근에사는 나히사십쯤 되어보히는 조선녀자한명이 로국사람과 눈이마저 날마다그집에드나들어 남의눈이 붓그럽운줄도 모르는터인데 그집으로 말하면 벽하나이가리고 역시 독신생활을하는 조선사람인 치과의사가 잇서 날마다적막히 밤을보내는 중 항상그엽방에서 행락에 넘치는소리를듯고 배마다마음이 산란하든터인데 이날은 더욱이유심하게 요란하야잠들수가업슴으로 그와가티뛰어나가 그녀자를 쪼츠랴고하다가 로국인과 싸움이 시작된것이라더라

船夫끼리殺人

범인은즉시검거

지난십일 선천군 신미도(宣川郡身彌島)고래사부근에서 백하(白蝦)잡으러갓든 배 가운데에서 평북선천군 신미도에 둔(平北宣川郡身彌島)리덕일(李德日)이란자가 평북뎡주군고읍면 덕원동(平北定州郡古邑面德元洞)에 원적을둔안원측(安元則)을 곤봉으로 두골을란타하야 현장에서 긔절되어 그이튼날 마츰내 사망하엿다는데 원인은자세히 알수업스나 전부터 무슨혐의가잇든 모양인데 취중에서로 말다툼을하다가 그러케된것이며 시테는 배에싯고 령미포(鎭美浦)에 도착 즉시로 령미경찰관주재소에서는범인을 검거하고 선원네명도 혐의자로 검거취됴중이라는데 사실의진상을됴사키위하야 지난십이일에 박천공의가 시테를 해부한결과 살타이분명하다더라(령미)

姨母를威脅 二百圓奪去

충남홍성군광천면광천리 리춘경(洪城郡廣川面廣川里 李春景)(三五)이란자는 지난 십일일밤에 광천에서 음식뎜영업하는 자긔이모오상신(吳相信)을보고 장사미천을대어달라고 엉터리를부리다가 그청구에 응치아니하매 십이일새벽두시경에 칼을가지고 자긔이모가 자는방에들어가서 돈궤열쇠를내라고위협하얏스나 주저아니함을 분히녀기어 칼도이모의 주머니돈을비어가지고 보앗스나 거긔에도열쇠가업슴으로 장도리로큰궤를 파괴하고 돈을찻다가 필경은벽장속에서 현금이백오원을 훔쳐가지고 다라낫다가 아츰일슥부터 동리술집에가서 친구를다리고 술을취토록 먹엇다는데 건넌과 오상신은 자식도업는 늙은과부로 근근히돈을모핫다가 불의의변을당하고 엇지할줄을 몰으고잇는바 여러사람들은 리춘경의비행을타매하다 더라(광천)

盈德警察은禁止 全寧海青年懇談까지

역시리유는아모것도업서 모힌群衆極度激憤

경북영덕군청년련맹(盈德郡青年聯盟)에서는군내청년운동을 촉진키위하야 녕해읍원의 청년을망라하야 지난팔일 오후한시에 녕해읍태화학원(太和學院)에서 녕해청년간친회(寧海青年懇親會)를개최하엿든바 경찰당국은 아모조건도업시 무리한금지를 명함으로 부득이해산케되엇는데 이에 극도로흥분된청년오십여명은 동디뒷산 송림속의 입천정(廿川亭)에 집회하야 긴장한 공긔가운데서 다소간담이 잇섯고 이어 연회를열고 해가지도록 유희를행한뒤 무리한경찰을비난하면서열광뎍만세삼창으로 무사해산하엿다더라(영덕)

無賴漢이 新興青年會를

습격하야집긔파괴

지난십일일오전 일곱시에 함남신흥(咸南新興邑)흥경리구장 노릇하는 리봉한(李鳳翰)이란자는 리영건(李榮健)변창봉(邊昌奉)외 수명의 누지한자들을선동하야 읍내신흥 청년회관(新興青年會舘)을 습격하고 테블과서류기타만흔긔구(什器)를파괴하고 란포하게도 간판까지떼어버렷다는바 그자들은본래부터완고하고 신진청년들의하는것은 불문곡직하고욕설하야오든바 금번에는 다소의 감정으로그와가티 참아용서하지못할만한행동을하엿는바 청년회에서는 그런자들을털저히 박멸하고저 동일오전여덜시에 동아일보지국 안에서 긴급집행위원회를개최하고 위선됴사위원 김형식 박승봉 현행팔 한택규(讚會委員 金亨植 朴承鳳 玄行八 韓澤奎)사씨를선정하야 됴사에 착수하야 됴사한후 당디청년련맹과협력하야 박멸적운동을 강구한다더라(함흥)

公普期成會 甘谷面民組織

전북정읍군 감곡면(全北井邑郡甘谷面)에서는 수백아동의교육긔관이업서 동학상불편이 막심함을 유감으로생각하고 동면유지제씨의 발긔로 지난十일에본면 사무소에서 일반면민이모혀 김대곤(金大坤)씨의 사회로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동일오후네시경에 폐회하얏다더라

今日

조선녀자청년회주최 조선일보사후원 데십팔회 부인견학단

참가규정
一、견학장소 조선과학관
一、견학시일 오월십사일오후두시
一、집합장소 왜성대총독부구령사압
一、참가수속 시내견지동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나청진동조선녀자청년회에엽서나던光六화(一五、一四七三)로통지하십시오
一、주의 신청시일 사정이잇스시면 시간을극직히주시고 륙십세이상노인과십이세이하아이들은동반하지마시기바랍니다

※ 함긔연면오가비 ※

僧房悲曲 (朝鮮映畵撮影興行) 〔5〕

獨鵑 作 羅雲奎 撮影監督

귀국후의그들 (1)

기다리는사람 오는사람

이튿날아츰이엇다 안개를 새여흘으는 첫빗가는햇빗은 쌜는듯 흐려지것마는운외사(雲外寺)를재기를몰어내리는 바람은 아즉도차다 찬바람을 어스치는운외사길목(雲外寺入口)에는 륙십여세나 되어보이는로승이 오륙명의 승도를잇글고긴 집행이에 몸을의지하여 누구를 기다리는드키서잇다

로승은 운외사주지최해암선사(雲外寺住持崔海巖禪師)이엇다

지금까지 로승뒤에서서 멀리바라보고잇든 젊은중하나가 한발걸음 로승의엽흐로 나스며 『시님거ㅣ긔 자동차보입니다 해운(海雲)──(第一의法名)스님이라신계가봐요』

로승은한손을이마우에올려 부치며 정력업서보이는눈을 가늘게 뜨고 큰길먼곳을 바라보앗다다른중들도 일제히 그곳을바라보앗다

×

록음을볼으는 첫여름 보슬비가 해지는 서울을적실때이다 청운동 김창호(金昌鎬)의집 조고만 화단(花壇)에도 은실의 빗발이 뿌리웟다 금년 동경음악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주인의딸『은숙』은 자긔가배우든 리화학당에서 교편을잡게되엇다

륙십이넘은 아버지 오십이갓가운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업는외딸로자라난 은숙은나이로는 스물두살이나된 녀학교선생님 이것마는 아버지어머니압헤 서는 소학교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리며 재롱을떠는것이 이집안의평

화를유지하는것이엇다 학교일만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무하여놀앗다

평화한가정

낫잠수부시는 아버지를 위하야 만도링을 켜들리고 달켜다보는 어머니를위하야 독창을 들려들엿다

어머니의 수고가업도록 모든일을대신해들이엇다

은숙은이제 평화한무대를 한층더곱게 장식할 화단우에서비를 노마커가며 꼿모종을 하기에분주하다

『얘야 찬비를 노맛다가 감긔들겟구나 그만두구들어온』

대청마루에 안젓는 어머니의말은 어머니답게 인자하엿다

『아이그 여름철에 감긔가웨들어요』

『글세이애야 이리올라와고집쓰지말고』 어머니는늘부려목청을돗첫다

『그까진년그만내버려두구려』 안방에 안젓든 아버지가미다지를열며 내다보앗다

『아버지! 아버지는어머니만치 귀해사랑해주지 안는단말이야』 은숙는아버지에게응석을부친다

『에라이년 네맛년을사랑해무엇하게 인제 시집가면그만 보긴』

『아이그 아버지두망칙해서』 은숙는 웃는눈으로 아버지를흘겨보앗다

『그럼 시집안가고처녀로늙을테냐?』

『안늙어요아잘테야요건저까지든지아버지하구 어머니하구살테야요』

『어데두구보자 이년시집만보내달래다봐라』

『아─응』은숙는 손가락으로버력는흉내를내고몰아슬쎄에 문밧게서

편지들어가오!

하는소리가들렷다

崔濟一──朱三祺
崔濟巖……尹逢春

…조고마케 보이든 자동차는차차커젓다 십여간쯤 거리를남기고 속력을 느추는자동차 창밧그로는 모자쓴영일의 머리가 기다리는사람들을 내다보고잇섯다

자동차가 덩거하자 미리엽렷든 문으로도 나린영일은 로승의압흐로와서 정숙하게 합장배례를하엿다

집행이를 드채도 합장만으로답례하는 로승의 쥬름만흔얼골에는 우승업는 반가운빗이그윽히흘럿다

뒤에섯든 다른중들은 둘의인사가끗나기를 기다려서 먼데서몰아오는 젊은주인인 상자『해운』시님(영일)을 합장 배례로마자다

로승과 영일은 다른중들에게차에실린 행리를거두라하고 천천히 비탈진길로 올라갓다

『네얼골이 간겨울에왓슬째만못햇구나 어데 몸이편치안엇니?』

로승은무거운입을열어서 그윽한 침묵을 헐엇다

『커는별도앓은데업습니다 돌오혀 시님의신관이 겨울보다 못하신듯 하외다』

『허허 내야이제 올길을 다온사람이 아니냐? 기우러지는것이 괴이할게잇니』

普校生의感電

생명이극히위독

호남선리리 일츨뎡(湖南線裡里日出町) 거락(金澤)씨의 차남금년리리공립보통학교 뎨일년생(裡里公普一年生)김긔배(金基培)(九)는 지난십이일오후 일곱시경에동뎡(同町)에 잇는 뎐주(電柱)에 올라가번 압긔(變壓機)에 손을대이다가 감뎐이 되어즉시 무참이떨어지고 왼손은 쎄가나오도록타바리엇스며두골이몹시도 파쇄되엇는데 생명이극히 위독하다더라

組合員이欺人取食

광주군중대면 거여리(廣州郡中垈面巨余里)에사는 강모(姜某)가불일이잇서서 수일전에 동군중부면산성리(同郡中部面山城里)비린식산조합(比隣殖産組合)에갓다가 돌아오는길에 약십뎡가량이나와서 동조합서긔김종택(金鍾澤)리만수(李萬壽)량인이 불름으로 가다더니 그자들이술한잔 먹고ᄀ,리함으로 다시몽리로와서 엇던료리뎜(料理店)으로가서먹나가 그두사람은 자리를피하얏고 주인은강모더러 료리갑을 달다함으로 그제야속은줄알고 부득이료리갑을 내고나와 그자들을차젓스나 간곳을아지못하야 몰아왓다는데 이소식을들은 일반은 비난이자자하다고

創立二週年紀念準備

강계소년회에서는 오월 삼십일이회의창립일임으로이날을긔념하기위하야 동상회에서 설비위원팔명을선거하야일체를부임케 로하엿는데 위원은 알에와갓다고

元義昌 李炳旭 韓準珏 崔炳煥 田世洲 金宗濟 張字 元許杰